

기억과 상상의 현장: 중국을 찾는 한국인 민족역사관광*

문옥표**

1. 들어가기

현대사회에서 관광은 다른 어떤 현상보다도 가시적으로 사람들의 이동, 문화접촉 및 사회변동의 맥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 믿음과 달리 관광을 통한 이민족, 이문화 간의 만남이 증가 한다는 것이 항상 평화와 화해 내지 문화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만 하는 것은 아닌 듯이 보인다(D'Amore 1988; Higgins-Desbiolles 2003; 박준규 2007). 해외로 이주해 가는 사람들이 이민족, 이문화 속에서 자신들의 민족적, 문화적 경계를 오히려 전보다 더욱 뚜렷이 인식하고 지켜 나가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이동해 다니는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견된다(Park 2005: 116). 이러한 현상은 이동과 문화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간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가 보다 진전될 것으로 보는 전지구

* 이 논문은 2008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동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물의 일부임.

**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류학 교수

화 이론가들의 낙관적 전망과는 상치되는 현상이다. 이 글에서는 국제 관광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관광객/주민 관계의 성격을 이해하는 하나의 시도로서 1990년대 초 한중수교 이후 꾸준히 지속되어 온 한국인의 중국관광의 주요 유형의 하나인 ‘민족역사 관광’(national history tourism)의 전개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관광현상을 매개로 동북중국 일대에 유적이 복원되고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관광객과 주민 사이에 나타나는 문화와 역사의 소유권에 대한 인식의 경합과 갈등, 그리고 그 과정에 개입하는 국가의 역할 등이 분석의 대상이 될 것이다.

2. ‘민족관광’의 두 가지 의미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서 ‘민족관광’은 흔히 ethnic tourism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여기서 ‘민족’은 민족/국가의 민족, 즉 nation 보다는 근대적 국민국가의 하위단위로 소속되어 있는 소수민족 minority group, 혹은 종족집단(種族集團, ethnic group)의 역사, 문화, 관습을 관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의미 한다(Smith 1989: 4). 개혁개방 이후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국내관광에서도 인구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한족(漢族) 이외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소수민족 집단이 55개나 되는 만큼 이들의 거주지역이나 관습은 주요한 관광자원으로 인식되어 정부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개발과 지원을 추구하고 있다 (Oakes 1995; Li and Hinch 1997; Sofield and Fung 1998; Li 2002; Tan et al. eds. 2001). 북경시내에 조성되어 있는 중화민족원(中華民族園)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서 그들의 독특한 생활풍습, 생업, 놀이, 가무(歌舞), 음식 등 민족문화 항목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에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정 소수민족 집거지의 가옥, 의상, 생활관습 등이 관광객을 위해 개방되며, 관광객들은 그들의 가옥을 방문하여 부엌, 헛간과 같은 일상생활 공간의 일부나 제단(祭壇) 등

을 촬영하는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며, 소수민족들은 그러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흥정에 나서기도 한다.

약 200만 정도의 인구로 공식적으로 중국 내 소수민족집단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조선족의 경우에도 이러한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앞서 언급된 북경의 민족 공원 내의 조선족 공간에는 가옥과 전통의상, 그네를 비롯하여 키나 절구 등 조선족의 농가 민구(民具)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그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차마저고리 등 조선족 의상을 빌려 입고, 그네에 걸터앉거나, 물동이를 이고 사진을 찍는다. 안내원인 조선족 여인은 전통 의상을 어떻게 입는가를 알려주며, 사진을 찍을 때 의상의 아름다움의 효과를 내기 위해 어떤 포즈를 취해야 하는 가 등을 조언한다. 다른 소수민족 공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선족 공간에서도 농악놀이, 부채 춤 등 전통 가무를 공연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선족의 경우 항상 이처럼 이국적이고 낙후된 이미지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 내의 다른 소수민족들과 비교하여 조선족은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한 유일하게 “본국”을 가지고 있는 소수민족으로 고유의 언어와 풍습, 역사 등을 보전하고 있기 때문이다(김광익 2006; 양영균 2006; 김병호·류춘옥 2008). 특히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인의 중국 방문이 증가하면서 조선족의 관광은 중국내 주류민족인 한족에 의한 국내 관광보다는 한국인을 주 고객으로 하는 국제관광의 성격이 더욱 강조되었고, 관광자원의 개발에 있어서도 중국 국내의 주류 문화와 구분되는 이국적 풍물의 강조 보다는 한국인과의 역사적, 문화적 연계성, 민족 상징 등이 더욱 강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한국인의 관광 형태는 비록 지금은 중국 땅에 있으나 조선족과 한국의 민족이 함께 공유하는 과거의 역사와 기억을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 되는 ethnic tourism으로서의 민족관광 혹은 종족(種族) 관광과는 구분하여 ‘민족역사 관광(national history tourism)’으로 일컬어 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글의 목적은 중국에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면서 단절되었던 한중간의 국교가 1990년대 초 재개된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온 한국인의 중국관광의 주된 형태의 하나인 민족/역사관광의 전개양상과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서 분석하고 있는 주요 자료는 2007년 7월 및 2008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약 일주일씩 행한 현지답사 및 관련자들의 면담자료이다. 2007년 7월에는 길림성에 위치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중심지인 연길시와 용정시 등 주변 지역의 항일 유적지를 방문하고 그로부터 송선(崇善)으로 해서 백두산의 북쪽 관문인 북파코스로 백두산에 올랐으며, 2008년 8월에는 요녕성의 단둥에서 출발하여 환인, 집안 등지의 고구려 유적지를 둘러보고 압록강 변을 따라 올라가 장백 조선족 자치현을 거쳐 동년 8월에 새로이 정비되어 열린 남파코스를 경유하여 백두산에 올랐다. 조사시기가 모두 성수기에 해당하였던 만큼 두 개의 다른 코스를 따라가며 한국인 관광객들을 만나고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의 관광객 및 가이드들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고 또한 길림성의 연길(延吉)시와 요녕성의 단둥(丹東)시, 집안(集安)시 등에서도 관광업 종사자들의 면담을 실시할 수 있었다.

3. 관광, 경계넘기, 상상을 통한 소비

한국인의 중국관광의 초기 형태는 민족의 성산(聖山)으로 여겨지는 백두산관광, 그리고 고구려, 발해의 근원지 및 근대 이후 항일투쟁의 흔적을 찾아가는 역사관광, 민족관광이 중심이었다. 중국대륙의 공산화 및 한국전쟁, 그리고 이어진 남북분단 이후 한국인의 자유로운 방문이 허용되지 않았던 동북 중국에 위치한 고대 한국역사의 현장과 항일투쟁 유적지 등을 찾아가는 행위는 역사학 등 관련자 뿐 아니라 민족주의적 관심과 지향을 가진 일반인들 사이에 유행하기 시작하여 급속히 확산되었다(Kim 2000; 이병태 1991; 송기호 1993; 송기현 1998; 최한성

1998; 박용희 2003; 정기은 2003; 고구려연구재단 2004, 2005). 그러나 중국영토 내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보인 지나간 역사에 대한 관심과 기억, 열정은 곧 중국당국의 주의를 끌게 되었으며, 민감한 정치적 관심과 단속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중국 정부 당국에서는 백두산 정상 등지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올리는 각종 제의(祭儀)를 비롯하여 모든 종교적 행사를 금지하였으며, 관련 역사유적에 대한 방문객의 출입을 통제하고, 한국 민족이나 역사와의 연계성을 암시하는 관광객들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경제적 수익을 목적으로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유적지를 정비하고, 새로이 개발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따라서 중국으로 가는 한국인의 민족역사관광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직 왕래가 자유롭지 않았던 수교 이전부터 나타나던 주로 엘리트 중심의 초기 형태와 관광의 양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2000년 대 이후 보다 대중적인 형태의 관광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¹⁾ 이미 20여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한국인 역사 민족 관광의 시기적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은 고구려, 발해 유적 관광과 항일 유적 관광에 대하여 중국 당국이 보이는 대응양상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효하다. 즉 오늘날 패키지 관광에서 고구려 유적 관광과 백두산 관광, 그리고 항일 유적지 방문이 하나의 투어로 조직되는 경우도 흔히 발견되기는 하나 전자가 역사 및 문화유산의 소유권 문제 등과 관련하여 양국 간에 민감한 사항을 제기하는데 반해 항일 유적 관광의 경우 양국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식민주의의 기도에 같은 고통을 체험한 동지로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그에 대한 대응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그러한 차이를 염두에 두면서 국제관

1) 1998년까지만 해도 중국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의 수는 50만이 채 못 되어 일본을 찾는 관광객 수의 약 60%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도부터 일본방문 관광객의 수를 앞지르기 시작 하여 2007년에는 약 480만으로 같은 해에 일본을 방문한 260만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현재 중국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관광지로 부상하였다.

광, 문화주권, 관광소비를 위한 역사 및 장소 만들기의 전개양상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항일 유적지 관광

1990년대 초 한중간의 교류가 정식으로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한국인들은 중국 동북 지역의 길림성에 위치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백두산을 찾기 시작하였다. 당시 많은 한국인들에게 조선족 자치주를 방문하는 것은 같은 민족을 찾아가는 행위였으며, 민족 정체성과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백두산을 오르는 것 또한 단순히 등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자연경관을 즐기는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최남선 1973[1927]; 眞鍋 2000, 2001; Kim 2000). 이러한 민족 관광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관광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 일반적인 관광지가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나아가 특별한 관심을 가진 한국인 방문자들이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 새롭게 관광지로 만들어지고 정비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인들에게 의미 있는 동북 중국의 곳곳에 위치한 항일 유적의 장소들은 관광객/방문자인 한국인들의 지원과 수요에 의해 새롭게 발견되고 구축되어 간 경우도 많았다.²⁾

수교 당시만 해도 연길에는 국제공항이 없었으며, 백두산을 가려는 한국인 관광객들은 북경을 거쳐 오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심양(沈陽)이나 장춘(長春) 등을 통해서 가야 하는 등 교통편이 매우 불편하였으며, 무엇보다 연길(延吉)시와 그 주변은 중국인들에게 뚜렷하게 알려진 관광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연길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에게는 근처에 위치한 윤동주의 시비(詩碑)가 세워져 있는 용정시의 용정 중학교(옛 대성 학교)를 방문하는 행위나, 화룡으로 가서 독립군의 항일 투쟁의 현장이

2) 중국인 학자로 일본에서 활동 중인 가오위엔은 중국 특히 만주지방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들과 관련하여 유사한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高媛 2001, 2006, 2008).

있던 청산리 대첩 전적지를 둘러보고, 민족 종교인 대종교의 초기 지도자들의 묘소에 참배하는 행위, 가곡 ‘선구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일송정에 올라 멀리 아래 들판의 해란강을 바라보며 민족의 아픔을 생각해 보는 일, 또한 노래에 언급되는 용두레 우물가, 용문교 등을 찾아보는 일, 두만강 연안의 삼합(三合)에 가서 강 건너의 북한 땅을 바라보며 같은 민족의 고난을 마음에 새겨 보는 일 등은 모두 의미 있는 관광행위를 구성하였다.

2007년 여름 필자가 일송정에 올랐을 때도 많은 수는 아니었으나 3~40대로 보이는 몇 명의 젊은이들이 일송정에 올라 눈을 감고 조용히 선구자 노래를 부르는 광경을 목격하였다. 그들은 모두 양복 차림으로 순수하게 관광을 목적으로 왔기 보다는 사업이나 기타의 다른 목적으로 부근에 왔다가 그 장소를 찾은 사람들로 보였으며, 눈을 감고 각자의 감회에 젖어 노래를 부르는 그들의 모습은 거의 기도에 가까운 것이었다. 가곡 선구자(先驅者)의 가사는 북간도³⁾ 용정(龍井)을 배경으로 작사된 것으로, 가사 첫머리의 일송정(一松亭)고개는 독립투사들이 오가며 쉬던 곳으로 생각되었으며, 그리로부터 보이는 산 아래 조선족들이 모여 살던 평강벌을 가로지르는 강이 해란강(海蘭江)이다. 조두남은 당시 망명청년으로서 1933년 21세 때 이 시에 곡을 붙였다고 하며, 광복 후 대중에게 많이 불려졌다.⁴⁾ 연변 지역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일제치하 시절에 일송정은 독립운동과 항일선구자들의 상징으로 조선인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이를 눈에 가시처럼 생각한 일본헌병대에서는 일송정을

3) 북간도란 백두산 동북쪽, 두만강 너머의 연길(延吉), 화룡(和龍), 왕청(王淸)의 3현과 흔히 혼춘(琿春)현을 아울러 가리키는 지역으로 본래 ‘사이 섬’이라는 의미로 間島라 하였으나 후에 백두산 서남쪽, 압록강 대안의 남만주 지방 한인의 이주정착지역을 서간도(西間島)라 지칭하게 됨에 따라 이와 구분하기 위하여 ‘북’자를 첨가하게 되었다 한다(윤병석 2008: 12). 간도는 조선인들이 개간한 땅이라는 의미에서 墾島로도 표기된다.

4) 특히 1963년 12월 30일 서울 시민회관에서 열린 송년음악회에서 바리톤 김학근(金學根)의 독창으로 발표된 것을 당일 기독교방송국에서 녹음하여 이 곡의 앞부분을 <정든 우리 가곡>이라는 프로그램의 시그널뮤직으로 7년 동안 사용함으로써 더욱 애창되었다고 한다(<http://www.startour.pe.kr>).

과녁으로 삼아 매일 박격포연습을 하였으나 웬 영문인지 맞추지를 못하여 소나무에 구멍을 뚫고 후추 씨를 밀어 넣고 대못을 박아 넣은 후 흔적을 없앴다”고 한다(나무를 죽이기 위해 고추 가루를 뿌렸다고도 한다). 그렇게 해서 시들어 가던 소나무는 1938년에 결국 말라 죽었다고 전한다.

2007년 필자가 찾아보았던 ‘일송정’ 소나무는 비록 크지는 않지만 산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어 누가 보아도 박격포 연습을 할 만한 위치는 전혀 아니었다. 필자를 안내하였던 연변대학교 교수 H씨에 따르면 수교 후 한국인들이 찾아와 일송정을 찾았으나 그 위치를 알지 못하여 오래 전에 용정 중학에서 일하였던 노인 한분을 찾아 그의 기억을 더듬어 현재의 위치를 잡아 소나무를 다시 심었으나 바람이 심한 비암산(毘岩山) 벼랑 끝에 위치하여 소나무가 잘 자라지 못해 자주 죽어 몇 번이나 다시 심어야 했다고 하며, 누군가가 베어버렸다는 주장도 있다고 한다. 소나무에서 조금 내려와 서 있는 팔각정자는 1990년에 신축하였으며, 소나무도 그 후 몇 차례 새로 심었다고 전한다. 또한 일송정으로 오르는 계단 입구에 선구자 노래비를 세웠으나 몇 년 전 윤해영과 조두남이 친일시비에 휘말리면서 선구자의 가사가 지워지고 지금은 용정의 노래로 바뀌었다.⁵⁾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송정을 둘러싼 전설이나 소나무 위치의 정확성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일제의 식민지배, 항일 투쟁, 민족사 등을 둘러싸고 함께 나누어야 할 기억이 끊임없이 새로이 만들어지고 또한 그를 위한 장소들이 발명되거나 복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자신들의 믿음을 확인할 장소가 필요하였으며, 그들을 관광객으로 맞는 조선족과 한족 모두 초기에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하고 정비하여 관광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서 보다 많

5) 노래비는 2001년 거제시와 용정시의 합작으로 세워졌으나, 후에 윤해영이 만주국 건립 때 상을 받은 사람이며, 선구자의 가사는 독립투사들의 투쟁을 그린 것이 아니라 일제 식민정부의 징병을 칭송하는 내용이라는 설이 제기된 후 친일시비에 휘말려 가사를 삭제기로 결정되어 2005년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 한다(연길시 S씨 면담자료).

은 한국인들을 유치하고자 노력하였다.

일송정 이외에도 용정시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우리민족의 반일국국의 중심지이자 교육의 성지이고 무심코 지나는 담장 하나 나무 한그루에도 우리민족 수난의 역사가 스며있는 곳”이었다(<http://moowoo.tistory.com/262>).⁶⁾ 100여 년 전 조선에서 선조들이 처음으로 건너와서 밭을 붙인 곳이 용정으로 그때에 용정은 간도의 중심도시였고 연길도 그때는 국자가라고 주변도시에 불과했다 한다. 용정시에서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곳은 용정중학교와 지금은 용정시의 청사로 쓰이고 있는 일본의 “간도 총영사관”이다. 한일합방 이전인 1907년 8월 일제는 ‘간도 조선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조선통감부간도파출소’를 세우고, 1909년에는 용정의 통감부파출소를 ‘간도일본총영사관’으로 고쳐 연변 일대를 통제하는 중심지로 삼았다. 이 건물의 지하에는 지금도 감옥과 취조실이 남아 있으나 상설전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관광객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곳은 아닌 까닭에 사전에 연락을 취해야 참관이 가능하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황량한 시멘트 구조의 이 지하 감옥을 돌아보며 그 곳에서 고초를 당하고 죽어 간 독립투사들의 원혼(冤魂)을 느낀다.

이러한 장소들 이외에도 중국 동북 지방, 특히 조선족 자치주가 있는 연변의 연길, 용정, 화룡, 도문, 심양, 장춘 등과 그 주변에는 항일역사와 관련된 많은 장소들이 있다. 위의 몇 사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장소들은 일반적인 관광의 장소가 아니며 안내판이나, 표지판도 없으며 접근하는 길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것들은 잡초가 무성한 들판에 위치한 조그마한 비석인 경우도 많으며, 거의 아무런 흔적도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나마 앞의 일송정이나 윤동

6)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는 중국 조선족 전체의 39.1%에 상당하는 75만 정도가 거주하며 자치주 전체 인구의 39.5%에 해당한다. 자치주 내의 조선족 집거지(集居地)는 용정시(龍井市, 65.8%), 연길시(延吉市, 60.4%), 화룡시(和龍市, 57.3%), 도문시(圖們市, 56.4%), 훈춘시(琿春市, 50.4%)로 현재도 용정시에 조선족 인구비율이 가장 높다.

주 생가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의 방문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부분은 한국인들의 찬조를 통하여 중국 지방 정부의 협조를 얻어 비석 등이 세워지거나, 가옥이 보수되거나, 조그만 전시실이나마 마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유적과 복원을 둘러싼 한국인, 조선족, 중국당국의 이해관계가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변질됨에 따라 그러한 협조관계는 항상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항일 유적 중심의 관광은 뒤에서 살펴 볼 백두산 관광이나 고구려 유적 탐방과 비교해 보더라도 훨씬 순례의 성격이 두드러진다.⁷⁾ 즉 그것은 한국인들만 찾는 장소이며, 그렇게 힘들여 찾아오는 한국인 관광객들과 일부의 조선족들에게만 의미 있는 장소로 그곳을 찾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에 대한 지식, 기억을 확인하고, 민족의 고난과 아픔을 되새기며 기리는 성스러운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장소는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며 접근도 어렵고, 일반인을 위한 관광 상품으로 개발되기도 어렵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 장소들은 비록 방문자가 있고 기억되기는 하여도 “소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고구려 유적을 찾아서

한국의 여행사들에서 제공되는 상품들을 중심으로 동북 중국의 관광 코스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개의 방향으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위에서 살펴 본 길림성의 연길시를 통하여 주변의 항일 유적을 돌아보고

7) 관광인류학에서 관광과 순례의 개념구분은 주요한 이론적 쟁점의 하나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두 행위의 통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유사성을 강조하기도 하며(MacCannel 1976; Grabum 1989), 혹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규정되는 현상적 차이에 주목하기도 한다(상세한 논의는 양한순 2007 참조). 이 글에서는 감정적으로 종교적 순례, 학술 답사, 문화/역사 관광, 쾌락적 소비관광 등의 행위는 모두가 ‘성과 속’의 연속선(the continuum of the sacred and the profane)상의 서로 다른 지점에 위치지어질 수 있는 현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북쪽으로부터 백두산을 올랐다 오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요녕성의 심양(沈陽)이나 대련(大連) 등지로 가서 환인(桓因)과 집안(集安)의 고구려 유적지를 둘러보고 서쪽으로부터 백두산에 오르는 경우이다. 두 개의 코스 이외에 압록강변의 조중(朝中) 국경선을 따라 올라가다가 장백현에서 바로 백두산을 갈 수 있는 소위 남파코스가 2008년 여름부터 새로이 열렸으나 아직 초기이므로 패키지 여행의 경우는 여전히 북파와 서파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국내 TV에서 드라마 ‘주몽’, ‘연개소문’, ‘대조영’ 등이 방영된 이래로 고구려 유적을 거치는 코스가 더욱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이에 비해 연결시는 2003년 연결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승격되고 관광설비도 많이 정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줄고 있다. 물론 북경 등 다른 곳을 여행하는 패키지에 백두산만 추가할 경우에는 대부분 연결을 거치게 되는 까닭에 적어도 지금까지는 백두산 관광에 연결시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정부에서 연결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백두산으로 갈수 있도록 2008년 8월 장백현의 백산시 송강하(松江河)에 장백국제공항을 새로이 개장함으로써 앞으로 연결시의 관광산업은 더욱 위협받게 되었다. 또한 연결, 심양, 대련 등은 모두 한국과 연결되는 국제공항을 통하여 항공편으로 가는 것이지만 이러한 여정 이외에 배로 갈 경우에는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단동으로 가서 그리로 부터 환인, 집안을 거쳐 백두산을 다녀오는 코스가 있다. 단동시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땅의 신의주를 마주하고 있는 까닭에 그 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압록강 건너편의 북한 생활상을 엿보는 국경선 관광의 요소가 추가 된다.

고구려 유적지를 찾아가는 일은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항일유적지의 참배와는 또 다른 의미의 역사여행이다. 항일유적지에서 민족 고난의 역사를 되새긴다면 고구려 유적에서는 비록 상상 속에서나마 잃어버린 영광의 역사를 기억하고 민족적 자부심을 재확인하는 장을 제공하기 때

문이다(고구려 연구재단 2004, 2005).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중국 여행의 기회가 열린 이후 교과서를 통해 배운 고구려의 모습이었던 졸본성(환인), 국내성(집안)을 방문하는 일은 말로만 듣던, 혹은 책이나 TV 등에서만 보던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의 현장을 찾아가는 작업이다. 그들에게 그 장소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우리 땅이었던 곳”이며, 그곳의 유적은 “우리의 문화재”이다. 따라서 고분이나, 산성 등을 제대로 관리하고 보존하지 않고 댐의 건설 등을 통하여 훼손하거나 소홀히 다루는 중국 문화재 관리 당국에 대하여 분개하며, 심지어 “남의 문화재”를 팔아 돈을 버는 행위를 비난하기도 한다.⁸⁾

이러한 반응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한 일본인 사회학자는 동북 중국지방을 여행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태도와 반응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시한다.

그곳에 드러나는 한국판 콜로니얼리즘은 역사 속의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방패로 삼아 ‘자랑스런 정복자의 역사’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재정복(再征服)되어야 하는 대상은 화이질서(華夷秩序)에서 본 북융(北戎), 즉 ‘야만스런 북방 제 민족’의 하나인 만주족, 그리고 중국공산당이다. … [중략] … 이러한 한국판 콜로니얼리즘은 한족(漢族) 이외의 이민족(異民族)을 모멸적으로 바라보는 소중화사상(小中華思想)과 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 깊다. 그곳에는 대조선주의(大朝鮮主義)라 일컬을 수 있는 팽창주의적 내셔널리즘의 싹이 잠재해 있으며, 같은 시선은 동이(東夷) 중에도 최하위에 서 있는 왜(倭), 즉 일본에도 향해져 있다. … [중략] … 바로 대조선주의와 결합되어 있는 한국판 콜로니얼리즘의 시선(視線, まなざし)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眞鍋祐子 2000: 88, 필자역).

8) 그러한 내용의 글들은 국내의 일간 신문지, 잡지의 기사 혹은 인터넷 상의 여행 동호회, 카페 등에 올라 있는 여행기 등에서 수도 없이 발견 된다 (예를 들어 동아일보 2006년 8월 24일자. “녹아내린 사신도 … 옥수수 밭 된 고분군 … ‘돈벌이’에 망가지는 중국 내 고구려유적 현장”; 충북일보 2008년 11월 18일자 “중국의 알미운 문화재 정책”; 이덕일 2008 등 참조). 이들은 대부분 “그 넓은 땅을 차지했던 우리의 선조들 대담하다”, “우리의 유적을 가지고 돈을 벌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훼손시키고 있는 중국 당국의 처사가 참으로 안타깝다”는 내용들이었다.

여기서 저자가 생각하고 있는 ‘콜로니얼리즘’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는 드러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환인, 집안 등지의 무너져 내린 성벽을 보며 고구려의 역사를 상상해 보고, 자신들의 조상이 남겼다고 생각되는 문화유산의 훼손을 안타까워하는 대다수 한국인 관광객들의 마음속에 ‘만주족과 중국공산당을 재정복하겠다’는 ‘팽창주의적 내셔널리즘의 싹이 잠재’해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으로 보인다.

2008년 단동에서 출발하여 환인의 졸본성(오녀산성)을 거쳐 집안으로 여행하던 참여관찰 답사 길에 만났던 한국인 관광객들은 매우 다양한 연령층과 배경의 그룹이었다. 관광성수기였던 탓에 특히 집안시의 경우 엄청나게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그들은 몇몇 확인 가능했던 경우만 보더라도 지방도시에서 올라 온 노인 친목회 회원들, 전남 담양에서 농사를 짓는 노인 부부들 중심의 효도관광단, 한 종교집단에서 조직한 대규모의 세계청년 연수단(이러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평균 연령층은 50~60대인 것으로 보였다), 육군 병사들의 교육연수여행단, 패키지를 따라온 소규모 가족여행 그룹 등을 포함하였다. 그들은 엄청난 인파로 인하여 거의 쫓기다시피 짧은 시간 안에 호태왕비로 표시되어 있는 ‘광개토대왕비’나 장군총으로 설명되어 있는 ‘장수왕릉’ 등을 참관하며 이동하였다.

그들에게 제공되는 조선족 가이드의 설명은 매우 간략하였으며,⁹⁾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석에 절을 하는 행위나 능의 내부를 촬영하는 행위, 태극기와 같은 한국을 상징하는 물건을 보이는 행위는 유적지마다 배치되어 있는 공안 감시원들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그들 중에는 TV에서 드라마로 방영되었던 ‘연개소문’이나 ‘주몽’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이것이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이었다는 점을 환기

9) 조선족 가이드들은 중국 중심의 역사 교육을 받아 한국의 역사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주 간단한 내용들만을 교육받고 가이드 시험을 치러 채용된다고 한다. 따라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한국인 관광객들 중에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가이드 경험을 통하여 배우며 그것을 다시 가이드에 이용한다.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빠른 관광일정을 마치고 바로 식사 장소로 이동해 가는 중년의 관광객들에게서나 만포강변으로 가서 뱃놀이를 준비하는 육군 병사들의 행동이나 태도, 혹은 대화의 내용에서 “팽창주의적 내셔널리즘의 싹”을 발견하는 것은 엄청난 상상력을 요하는 것이었다.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그러한 장소를 방문하는 행위는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민족의 역사를 그 곳에 직접 가 봄으로서 다시 한 번 상상해 보는 일, 즉 이성(理性)적이기보다는 감정, 느낌의 수준에서 과거와 소통하는 일시적인 순간을 경험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한 해석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가상현실을 방패로 삼아 정복자의 역사의 부활을 꿈꾸는” 행위라기보다 상상을 통한 일시적인 관광적 소비 행위라고 이야기 될 수 있다.¹⁰⁾

3. 국가, 역사 만들기, 문화주권

1) 역사와 장소를 둘러싼 갈등

관광객이 특정의 장소를 선정하여 방문하고 소비하는 행위는 개인적인 것이다. 관광지에서는 그러한 개인들 혹은 단체들을 가능한 한 많이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객들이 원하는 바를 살피고 그러한 수요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후자의 경우 개인 뿐 아니라 지방 자치 단체, 국가 등이 개입될 수도 있으나, 그 일차적인 동기는 경제적 이윤이며, 그들의 행위는 상업 행위라고 볼 수 있다.

10) 다만 마나베가 현지조사를 하고 기술하고 있던 시점이 본 조사보다 10여 년 정도 앞선 시기였다는 점을 감안 해 볼 때 중국관광이 보다 대중화된 2000년대 말의 시점과 비교해 당시 한국인 관광객들의 행동에서 좀더 ‘민족주의적’인 요소가 관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위의 글에서 분석된 주 대상은 수교 이전부터 중국을 방문하기 시작했던 지식층 내지 엘리트 방문자들의 수기, 여행기 등이었던 만큼 그러한 데서 보이는 감격이나 열정, 감상 등은 이번 조사에서 관찰의 대상이 되었던 최근의 보다 대중화된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나베는 다른 글에서 상하이 임시정부 옛 청사를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행동에서 유사한 변화를 논하고 있다(마나베 2006).

그것이 유적이던 자연경관이던, 특별한 기억의 장소이던 공급하는 측에서는 상품을 만들어 공급하고, 구매하는 측에서는 그것을 취사선택하여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북 중국 지방의 민족/역사 관광에는 처음부터 이와는 다른 요소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특히 고구려 유적과 백두산에 대하여 그것이 과거에 우리의 땅이었으며 그곳에 남아 있는 유적들은 비록 중국 영토 안에 있으나 우리의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며, 특히 중국 여행이 허용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에는 그러한 생각을 행동으로 표현한 예가 보다 빈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백두산에 올라 촛불을 켜고, 소주를 한 잔 따라 놓고 제사를 지내는 행위나 혹은 일송정 앞에서 기도하거나 몇 개의 과일을 놓고 절을 하는 행위 등이 모두 그 땅을 재정복 하겠다는 ‘식민주의적’ 의도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국인 관광객들 중 일부는 고구려의 영토였던 만주 일대가 “옛날에 우리 땅이니 지금도 우리 땅이다”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그들 중에는 “故土回復”이라고 중국인들도 금방 알 수 있는 한자로 쓴 플래카드를 가지고 와서 흔들며 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연변대학교 S교수, 개인면담 자료).

이미 존재하는 특정의 역사유적 이외에도 중국의 동북 지방에는 오랜 동안 조선인들이 거주해 왔던 곳인 만큼 다양한 기억의 장소가 있었다. 수교 이후 그러한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가능해진 한국인들은 그 지역의 여러 곳에 비석을 세웠다. 이것은 관광객들 자신이 현지인/호스트들이 모르거나 관심을 두지 않아 관광지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던 장소에 사전 지식을 가지고 찾아와 장소를 찾아내어 그 곳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지 내지 순례지로 만드는 작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그러한 작업에는 현지인 중의 일부, 예를 들어 조선사를 연구해 온 학자들이나 민족지도자들, 유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던 것이 대부분이며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관광수익을 올리기 위해 한국인들을 부추겨 비석을 세우거나 기타 관련 시설 건조에 협찬을 장려한 경우도 많았다. 가곡 선구자와 관련된 노래비나 일송정의 복원 등이 그 예이며, 그 이외에도 ‘십오만 탈취현장 기념비’,¹¹⁾ ‘3·13 이사릉’,¹²⁾ 일제 초기 사회주의 계열의 신여성 작가였던 강경애비, 김좌진 장군의 항일 투쟁 지역이었던 청산리 대첩 기념비, 봉오돈 전적지, ‘사이섬(間島)’ 표지석,¹³⁾ 식민지 시대부터 널리 유행하였던 대중가요 ‘눈물 젖은 두만강’비, ‘나의 살던 고향’비,¹⁴⁾ 단군신화의 웅녀(熊女)상¹⁵⁾ 등 수십 개가 있었다. 한국인 방문자들에게는 그러한 모든 장소가 그들의 민족문화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곳이었으며, 따라서 그러한 장소에 기념 표지를 만들어 놓음으로서 기억과 경험, 상상을 공유하기 위한 상징물로 삼고자 하였다.

물론 타국의 영토인 만큼 비석이나 동상과 같은 물질적 표징을 건립하는 일은 현지인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였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그러한 협조는 대부분 그 지역에 거주하던 조선족 관련자들로부터 얻어졌으며 해당지역의 당국도 처음에는 묵인, 동조내지 장려하는 분위기

-
- 11) 일제시기 일본은행 자금을 이송 중 독립군들이 탈취하였던 사건으로 연변지역의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1990년대 초 용정시에 기념비를 세웠으나 후에 철거되었다.
 - 12) 재만(在滿) 조선인들의 삼일운동으로 당시 일본인들의 사주에 의한 만주군벌의 총기난사에 의해 희생된 인사들의 묘소로 복원된 것인 듯하다.
 - 13) 옛 조선시대 육진 중의 하나였던 중성 근처의 개산툰 모아산 밑에 2000년경 세웠던 ‘사이섬(間島)비도 지금은 사라진 것의 하나이다. 그것은 그 지역의 촌장이 한국인 관광객을 좀 더 많이 끌기 위해 돈벌이 목적으로 세운 것이었다 한다. 촌장은 조선족이었으므로 민족의식도 조금은 있었을지 모르나 기본적으로는 경제적인 목적이었다 하며 비석을 세운 후 한국 손님들도 많이 오고 조선족 주민들도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 손님이 오면 데려가 사진을 찍곤 하였다 한다. 그러나 후에 간도를 둘러싸고 한중간의 영토분쟁의 조짐이 보이자 그런 원인을 근절하기 위해 2004~5년경 누군가에 의해 폭파되었다. 중국의 지방공안국에서 한 것으로 추측하나 밤에 폭파하여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에 확인되지는 않는다.
 - 14) 이것 역시 비암산 밑에 세워졌으나 홍명파의 친일 시비로 후에 철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5) 왕청현에 있는 웅녀상은 한국인의 모습이 아니며 인종과 국적을 알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로 표현되어 있다. 이에 대해 조선족 학자인 K 교수는 “알면 웅녀, 모르면 선녀”라고 한다.

기에서 가능하였다. 그러나 한국으로부터의 관광객의 수가 늘어나고 중국내 소수민족의 위치에 있는 조선족과 한국인들의 접촉이 더욱 가시화 되면서 중국인들의 경계심을 자극하게 되었으며, 특히 고구려사와 관련된 부분은 영토문제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수많은 소수민족을 중국이라는 하나의 국가체제 안에 통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중국 당국에게 주요 소수민족의 하나인 동북지방의 조선족사회가 한국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은 경계의 대상이었으며, 또한 일부 한국인 관광객들의 행위로 미루어 볼 때 통일이 되면 만주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하여 영토 분쟁의 말미가 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깔려 있었던 까닭에 이러한 가능성을 근절해야 할 정치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중국정부는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기 위한 ‘역사 만들기’ 작업에 해당하는 소위 동북공정(東北工程)에 착수하면서 일련의 조치를 강구하였다. 2003~2007년까지 진행된 동북공정의 주된 내용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다민족통일국가론”과 “중화민족론”의 틀 속에 동북변강의 역사를 흡수하는 내용이었다. “다민족 통일 국가론”이란 “현재 중국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는 모두 중국 역사”로 보는 시각이며, “중화민족”이란 “현재 중국 영토 내에 존재하고 있는 한족(漢族) 및 소수민족뿐만 아니라 과거 중국 강역(疆域) 내에 살아 왔던 모든 민족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강조된 것이다(윤휘탁 2003: 185). 이 시각에 의하면 중국 역사는 현재 중국 국경 내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의 역사를 총칭하는 것이 되며, 이에는 지금의 중화민족 뿐만 아니라 이들의 원조(元祖)였던 고대 민족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을 의미 한다.¹⁶⁾

오늘날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역사 논쟁의 구체적 내용이나 전개 과

16) 고대사학자인 윤휘탁에 따르면 그동안 중국에서는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보는 학자의 경우에도 427년 평양으로 천도하기 전 까지만 중국사로 인정하고 평양 천도 이후는 한국사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였다고 한다(윤휘탁 앞글: 앞면). 그러나 이 새로운 시각에 의하면 고구려인들이 “현재의 중국 영토 내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고구려사는 668년 멸망할 때까지 전면적으로 중국사에 편입되게 된다. 여기에는 고구려인들이 중국 영토 내에 남긴 문화유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음이 분명하다.

정을 밝히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 아니며 가능한 것도 아니다(Ahn 2006).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프로젝트의 전개가 한국과의 접촉, 그 중에서도 동북 중국지방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의 증가 및 그들의 행태에 대한 관찰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나아가 관광객들에 대한 통제 강화와 감시, 역사 유적을 포함하는 관광 대상물에 대한 정비와 의미의 재해석 작업 등에 연결되고 있다는 점 등은 이 글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실제로 동북공정의 전개와 더불어 많은 고구려 유적들은 모두 중국의 유적으로 표시하여 중국 측에서 볼 때 그 소속을 보다 분명히 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백두산은 만주족(滿洲族)의 성산(聖山)으로 그 의미가 강화되고 전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동북 지방의 한국인 민족/역사 관광과 관련된 조선족의 역할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중국 길림성 출신의 한 조선사 관련 학자에 따르면 중국 정부에서는 동북공정을 시작하는 것과 더불어 2002년도 조선 관계 사료가 많이 있던 연변 사회과학원의 역사연구소를 폐쇄해 버려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던 교수 80여 명이 일시에 실직하는 일이 있었다 한다.¹⁷⁾ 연변 사회과학원의 역사연구소는 (조선)민족사 연구의 중심이었으나 폐쇄조치와 더불어 소속되어 있던 연구자들 중 50대~60대의 연장자들에게는 봉급을 줄 테니 글을 쓰지 말라는 통보가 내려져 그만 두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 간 사람들이 많았으며, 보다 젊은 연구자들은 중국공산당사 연구실이나 (중)국사편찬위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그와 더불어 조선 민족과 관련된 자료를 많이 보관하고 있던 연길 시내의 ‘연변 당안관(檔案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모두 장춘으로 옮기는 작업도 행해졌다.¹⁸⁾

17) 이 사건을 국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중국 조선족 사회에 이처럼 큰 사건이 국내 주요 언론에 보도조차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조선족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거나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18) 당안관이란 모든 개인의 신상기록 및 법령, 훈령, 행정 조치 등에 관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던 곳이며, 한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연변의 조선족들이 그 자료들을 한국인들에게 넘겨줄지도 모른다는 의심 때문이었다 한다.

또한 2002년도에는 중앙당사 연구실로부터 1990년대 초반부터 연변지역 일대에 세워진 한국/조선족 관련 비석이나 유물 중 열 개만 남기고 다 파괴하거나 내용을 바꾸려는 지시가 내려졌으며, 해고되지 않고 남아 있던 젊은 조선족 연구자들에게 그 선별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두만강가의 시비(詩碑), 개산툰에 세워던 ‘사이섬’(間島)비, 강경애비, 일부 항일투쟁 전적비 등 수많은 비석들이 파괴되거나 비문이 삭제되어 다른 것으로 바뀌었으며, 일송정의 선구자비가 용정시비(龍井市碑)로 바뀐 것도 작사자와 관련된 친일행적 시비 뿐 아니라 이러한 정치적 배경이 작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2002년경부터 시작된 한국 관련 비석, 유물 등의 제거 작업은 대부분 밤에 폭파되거나 하여 정확히 누구에 의해서 행해졌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중국 공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할 뿐이며, 문화혁명기의 뼈아픈 민족 탄압 경험이 있는 조선족들 중에서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일에 자신이 관련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후에 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스스로 몰래 자신의 이름을 지우는 등 비문을 훼손하거나 했을지도 모른다는 설도 존재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 측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경제손실을 무릅쓰고 하는 것이었다. 한국인들의 민족역사 관광이 시작된 초기에는 중국 당국에서도 관광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그들이 비석을 세우거나 민족사와 관련된 관광지 개발에 찬조하는 것을 장려하였으나, 점차 한국인들의 잦은 방문에 의해 중국의 조선족들의 민족의식이 고취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을 단절하기 위한 목적에서 내려진 정치적 결정이었다. 이러한 조치들과 더불어 연변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소위 ‘3관 교육’(三觀教育)이 강화되었다. 3관이란 ‘민족관’(民族觀), ‘역사관’(歷史觀), ‘조국관’(祖國觀)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변의 조선족들은 ‘중화민족’이며, 그들의 역사는 ‘중국 역사의 일부’이며, ‘조국은 중국’임을 교육하는 것이었다.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3관 교육은 신문, TV, 학교 등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으나 후에 그러한 교육이 오히려 민족 문제를 잘 모르고 중국을 조국으로 알고 자라던 조선족의 어린이들에게 민족문제를 깨우치게 되는 부작용이 지적되었으며 또한 조선족 사회 내부에서도 “왜 조선족만 유독 특별히 취급하는가?”하는 반발이 나타나 호지부지 되었다 한다.

2) 장소/유적의 정비와 회수(回收): “백두산에서 장백산으로”

한 때 북경을 근거지로 여행업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J씨에 따르면 중국을 찾는 한국인 관광에는 내용상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수교 이후 1990년대 초반 해도 중국 관광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북경 3박 4일 코스가 당시 가격으로 250만 원 정도였으며 그만큼 경제적 부담이 가능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으며, 서류도 까다로워 재산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자신의 고객은 대부분 회사 일을 끼어 여행하는 ‘사장님들’이었으며 후에 우황청심환과 같은 한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중국 상품을 사다가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장사를 목적으로 가서 관광을 겸하는 상인들이 늘어났으며, 보다 대중적인 ‘순수관광’으로 된 것은 최근이라고 봐야 한다고 한다(J씨 면담자료).

그는 또한 초기 북경을 찾아가는 한국인 여행객 중 백두산을 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50대 이상 연령층의 어른들이었으며, 젊은 사람들은 “백두산이 어디 있느냐?” 할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 한다. 젊은 사람들의 관심은 주로 만리장성 이남의 산수 구경에 있었으며 따라서 비록 소수였으나 그들의 목적지는 북경, 서안, 계림 등지가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반면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민족 감정’에서 백두산에 가 보고자 하였으며, 그 이외에 월남한 어른들 중 백두산을 가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북에 두고 온 아내와 자식들이 보고 싶고, 직접

보지는 못하더라도 두만강 변이라도 가보고 싶다고 했으며 그 중에는 사진을 가지고 와 가족을 찾아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많았다(『씨 먼담 자료』).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동북공정을 포함하여 중국 당국에서 행한 일련의 조치들은 동북지방 관광지, 유적지에서 한국/조선의 민족이나 역사와 관련된 흔적을 가능한 한 지우고 중국의 유산으로 회수(回收)하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연변 자치주 쪽에 세웠던 수많은 비석, 표지석 등을 파괴하거나 내용을 고쳐 중국의 것으로 만든 작업은 그 대표적 예에 해당한다. 한국인의 기억 속에 있는 선구자비의 노래를 지우고 용정시비로 바꾼 것이나 초기 민족교육의 현장이던 대성학교나 서전서숙(瑞甸書塾) 표지비는 그대로 두어 용정 교육사에 포함 시킨 것 등은 마찰을 최소화 하며 장소를 전유(appropriate)하고자 하는 고려를 보여 준다.¹⁹⁾ 고구려 관련 유적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동북공정에 의한 역사 재해석 작업을 통해 송두리째 중국의 유산으로 바꾸고 그에 적합한 표지판의 설치, 박물관의 전시, 설명 자료의 배부 및 안내원의 교육 등이 병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동북 중국 지방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행위 중 민족이나 역사를 공공연히 상기시키는 행위는 엄격히 감시되고 통제되었으며 적발될 경우 엄격히 처벌되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집안 등지의 고구려 유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경우 시대적 고증이나 역사적 검증이 무시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예를 들어 2008년 여름 집안에 남아 있는 고구려 산성의 하나인 환도산성 터에 궁궐을 복원하였는데 그 건물의 양식이 고구려 시대인 4~5세기 것이 아니라 명청(明淸) 시대의 것이어서 국내의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지적되었다. 즉 고구려 산성 옆

19) 남겨 둘 유적의 선정에는 정치적 고려도 있었다. 예를 들어 청산리 대첩비는 한국의 독립 운동사에서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인 만큼 한국 측의 반응을 우려해 남기도록 결정되었으나, 대중문화의 항목인 ‘눈물 젖은 두만강’비는 없애 버려도 정치적으로 크게 비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한다.

에 명청시대의 건물을 지어 놓음 으로서 유적 본래의 성격을 모호하게 하고 관람객들에게 혼란을 불러 올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러한 역사적으로 부정확한 복원 작업이 중국 정부의 의도적인 계획에 의한 것이었는지 졸속의 복원과정에서 나온 부수적인 결과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또한 중국 변방의 산에 불과하던 백두산은 2003년 중국 10대 명산의 하나로 포함되고 민영 공항 건설을 포함하여 스키장의 건설 등 대대적인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하여 2006년 KBS의 일요스페셜에서 “백두산 공정”이 방영된 이래 국내의 일간지, 주간지에서는 앞 다투어 우리민족의 성지(聖地)인 백두산이 사라지고 중국인들의 장백산만 남게 되었다는 경고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핵심 내용의 하나는 2005년 5월부터 연변조선족 자치주 관할 하에 있던 백두산 관리권이 길림성 정부로 이관되어 ‘장백산개발관리위원회’의 책임 하에 들어갔다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백두산 안에 있는 한국자본에 의해 건립되었던 호텔 등 시설들을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철거하도록 하였다. 또한 백두산의 북쪽 산문(山門)인 북파의 입구에 있는 이도백하(二道白河)의 간판과 안내문에는 조선어가 사라지기 시작했다(주간동아 2008). 또한 백두산에의 접근 가능성도 크게 개선되었으며 2008년 새로이 열린 남파코스의 경우 미국의 국립공원을 본 딴 최신의 시설로 1000여 개 이상의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 서파코스과 달리 백두산 산정까지 자동차로 갈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중중 국경을 면한 강줄기를 따라 래프팅 코스까지 개발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백두산을 찾는 관광객의 내용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어 “장백산을 찾는 관광객 수는 1980년의 3만 명에서 1996년 20여만 명으로 급증하였으며 이 중 외국인 관광객의 90% 이상이 한국인이다”(차운정 2008) 하였으나 최근의 백두산 관광객은

80%이상이 한족(漢族)이며 한국인은 10% 정도로 추산된다고 한다(여행업 종사자 C씨 면담자료). 이들 한족 관광객은 광둥, 상해 등 남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하는데, 백두산 천지에 올라 느끼는 감상은 물론 북한 땅을 면한 철조망을 따라 래프팅을 즐기는 이들 중국 관광객들에게 동일한 장소가 가지는 의미는 대다수의 한국 관광객들과는 엄청난 격차가 있으리라 짐작된다.

3) 관광매개자로서의 조선족

다른 종류의 중국 관광에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한국인들의 민족역사 관광의 과정에서도 동북중국지방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으로의 조선족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우선 그들은 중국어가 불가능한 대부분 한국인 관광객들의 현지 안내자로 관광과정을 조직하며, 방문지의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소수 역사의식을 가진 지식인 계층을 제외하고 중국의 공민으로서 교육받은 대부분의 조선족들은 한국의 근현대사뿐 아니라 고대사에 대해서도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조사과정에서 만난 조선족 출신의 한 대학교수는 그러한 실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국의 조선족은 부평초 같은 존재다. 중국의 대학입시에 한국사에 관련된 사항이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한국 관련 내용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소학교부터 중국사만 가르치기 때문에 중국사에 대해서만 알고 민족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모른다. 중국의 고급 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 중 이순신이나 안중근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들은 거의 없으며, 심지어 반항시인 윤동주에 대해서도 교과서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10여 년 전에 연변 지역의 고급 중학 2학년 학생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제일 존경하는 역사인물로 이순신이나 안중근을 답한 경우는 3명뿐이었다. 근대 역사에서 서태후, 명성황후 등이 언급된 항목에서도 명성황후를 알고 존경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두 명 뿐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중국의 역사인물을 꼽았다. 항일 투쟁과 관련해서도 한국인들에게 잘 알

려진 청산리 전적지나 봉오둔 전적지, 일송정 투쟁 등에 대해 들어 보거나 알고 있는 학생들은 드물며 개념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조선 역사 전공의 K 교수 면담).

그러한 상황에서 한중수교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한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새로운 수입원으로 등장한 관광 안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들은 한국인들의 관심의 대상인 고대사 및 근현대사에 대해 새로이 학습해야 했다. 실제로 고구려 역사의 현장으로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인 환인과 집안 일대에서 조선족 출신의 안내원들이 안내하는 내용은 대부분 지난 몇 년간 그 지역을 방문하였던 한국 출신의 역사학자들이나 문화재 관련자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하여 지습한 내용인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비록 언어가 통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국인 관광의 초기에는 역사와 문화, 민족과 관련된 문제에서 그들이 항상 관광 매개자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많은 조선족들은 한국인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나 유적들에 대해 무지 하였거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비로소 그 중요성을 발견하게 된 경우도 많다. 앞서 많은 항일 유적이 한국인들에 의해 혹은 한국인들과 조선족 학자들의 협조에 의해 찾아지고 새로이 만들어진 예들을 들었으나 마찬가지로 집안에서 만난 한 교사에 따르면 적석분등 고구려 시대 고분이 밀집되어 있는 집안의 경우에도 한국인들이 들어오기 전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현지에 사는 조선족들은 풀이 나 있는 돌무더기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이 내팽개쳐 두었으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5년 집안의 고구려 문화유산들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게 되면서 주민 철거와 유적 정비 작업이 이루어질 때부터였다고 한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한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 유적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하였으며, 그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다. 2008년 방문

한 집안의 조선족 중학교의 경우는 한국에서 학생, 교사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고주몽의 정신과 낮을 이어가는 학교”로 새로이 변신 하였으며 관광객들을 맞이 위하여 학교 안에 숙박시설과 식당을 별도로 설치하였다. 교사들도 또한 관광안내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 안에 여행사를 입주시키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던 조선족들은 역사/민족 관광의 과정에서 일부 불거진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서 애매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중국 국민이면서 “혈연적으로” 한국인과 같은 한민족(韓民族)의 정체성을 공유한다고 생각하는 조선족 안내자/매개자들은 한국인 관광객들과 항상 ‘민족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선족들의 대부분은(앞의 K 교수는 ‘전체’라고 함)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부 한국 사학계의 주장이나 ‘옛 땅 찾기 운동 본부’와 같은 단체의 활동을 “정신 나간 짓”이라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2008년 여름 답사 여행길에 동행하였던 조선족 출신의 한 언론인의 표현을 빌면 한국인 관광객들이 “순순히 와서 보고 가면 될 것을 ‘우리 땅이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다’ 등 함부로 지껄이며 태극기를 흔들고 제사를 지내는 등 까불다가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한국인들을 감격시키는 고구려 유적이란 것에 대해서도 대단치 않게 폄하한다. 즉 “집안이 고구려 400년 도읍지라 하지만 무엇이 있는가? 고작해야 무덤들 밖에 더 있는가?” 하며 그 정도를 가지고 요란하게 떠드는 한국인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반응은 중국 정부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고구려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 귀중한 벽화들이 습기 때문에 훼손되고 있으며 국내성터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표지도 없이 방치되어 인근 주민들이 성벽의 돌을 빼다가 집을 짓기도 했다는 사실 등에 분개하고 안타까워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반응과는 많은 거리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지적하여야 할 것은 한국인의 중국관광 중에서도 특히 민족 역사 관광을 매개하는 조선족의 입장에는 많은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앞서 백두산/장백산의 관리권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길림성으로 넘어가게 된 과정에 대하여 국내 언론에서는 “중국정부의 예정된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조사 중에 만난 한 조선족 학자는 그 배경에 조선족 출신으로 지금은 길림성의 관리로 승진한 K씨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백두산은 민족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고 정치적 욕망만 있었던 조선족 출신의 관리인 K씨가 성(省)에 가져다 바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한다. 즉 연변 자치주에 근무하던 K씨는 개인적 출세를 위하여 여러 가지 중국 정부에 호응하는 정책을 실현하였다는 것이다.²⁰⁾ K씨와 같은 사례는 조선족 출신의 학자들이나 연구자들과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를 보이며, 그러한 차이는 실제로 관광을 매개하는 안내자, 관광관련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보인다.

한국인 민족/역사 관광이 조선족 사회에 미친 영향으로 조선족들은 중국 주류 사회로부터 의심과 경계의 대상으로 부각된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중국 정부 당국은 문화자원을 활용한 소수민족관광을 크게 장려하고 있으나 한국과의 연계를 의심받고 있는 조선족에게는 그러한 개발조차 매우 어렵다고 한다. 즉 연변에 위치한 명동촌(明東村)의 경우 조선인들이 간도지방으로 이주해 가서 처음으로 만든 마을로 전형적인 조선마을의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조선족 지도자들은 그것을 자료로 삼아 조선족의 역사와 문화, 민속을 보여주는 문화관광을 추진하고자 시도하

20) 그 중 하나는 교육에 관한 것으로 이전까지 자치주내의 학교에서는 모든 과정이 ‘우리말’(조선어)로 진행되고 중국어를 외국어로 배웠으나, 그에 의하여 ‘우리 말’이 외국어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는 또한 백두산의 관할권뿐 아니라 연변 내에 있던 담배 공장과 석유 회사 등 좋은 기업들을 모두 길림성으로 넘기거나 합병하였으며 그 결과 연변 안에는 공장이나 회사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덕분에 K씨 자신은 고속으로 승진하였으나 연변 조선족 사회에서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였다. 그렇게 하면 전형적인 ‘민족관광’(ethnic tourism)의 장소로 한국인들에게 뿐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매력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에 대하여 주정부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으며 혹시 배후에 한국인들이 있지 않은가 의심하여 지원하고자 하지 않았으며 그 계획은 결국 실현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 조선족의 경우 문화적 자산이 있어도 개발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한다(연길거주 P씨 면담 자료).

4. 맺음말: 민족역사 관광에서 관광객과 호스트의 관계

중국을 찾는 한국인 관광은 중국방문이 본격화된 1990년대 초 이래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드디어 일본방문자의 수를 넘어 한국인들에게 제1의 해외방문지로 떠올랐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이 일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실 이외에도 중국 국내의 관광산업이 급속하게 정비되면서 접근이 더욱 용이해 졌다는 사실 등을 배경으로 한다. 관광객의 송출지인 한국 국내에서도 해외여행객이 급증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은 대중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상품의 개발에 주력하였으며 태일랜드,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와 더불어 중국의 여러 다양한 지역을 찾는 상품을 개발하였다(문옥표 외 2006a 참조). 그러나 이처럼 한국인의 중국 관광이 북경, 서안, 상해, 장가계, 계림, 하이난 등지로 확대되고 그 주제에 있어서도 자연관광, 스포츠 관광, 중국역사문화 관광 등으로 확대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족의 역사와 관련된 동북 중국지역의 방문은 여전히 한국인의 중국관광의 가장 중요한 일부로 남아 있다.

관광은 게스트(guest)로서의 관광객과 그들을 맞아들이는 측, 즉 호스트(host)와의 만남의 맥락을 제공하며 나아가 양자가 지닌 문화 간의 접촉의 기회를 증가 시킨다(Smith 1992). 그러나 그 만남(encounter)의

성격은 경우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이 글에서 살펴 본 중국동북 지방의 한국인의 역사/민족 관광에서 특히 독특한 양상을 드러낸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의 하나는 관광객이 관광 대상물의 생산에 직접 관여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특히 한국 관광의 초기에 두드러졌다. 즉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은 이국(異國) 땅에 우리 민족과 역사에 관련 된 장소를 찾아내어 그 곳에 순례를 위한 표징(表徵)을 세워 놓음으로써 그 곳을 방문하는 사람들과 기억과 감회를 공유하는 매개로 삼고자 하였다. 여기서 한국인 관광객들은 중국을 소비한다기보다는 중국의 영토 안에 있는 한민족(韓民族)의 역사와 문화 및 그에 대한 기억과 향수를 소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의 과정에서 “백두산은 우리 땅이다” 혹은 “만주 별판을 되찾아야 한다”는 등 일부 한국인들이 보여 준 과장된 표현과 열정은 중국으로부터 의심과 경계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에 대하여 통치권을 수호하려는 일련의 조치로 이어졌다. 관광의 호스트로서 중국 측에서 행한 그러한 대응 조치는 매우 기이한 ‘주인과 손님의 관계’(host-guest relations)를 연출하게 된다. 즉 손님으로써의 한국인 관광객들은 중국 측에 돈을 지불하고 여행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역사 관광에 의미 있는 장소를 방문할 때 주인에 의해 지정된 방식으로만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그들은 관광 대상물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물론 기도 하거나 절해서는 안 되며(돈을 놓는 것은 허용 된다), 심지어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쓰여진 T셔츠를 입어도 안 되고, 백두산에 오르는 경우에도 당국이 지정한 길 이외의 길로 내려 올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한다. 주인인 중국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관광객의 마음속에,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생각과 상상, 느낌 뿐이다.

여기서 통제되는 것은 관광객만이 아니다. 한국인 관광객들과 민족적 연계성을 의심 받고 있는 조선족 가이드들의 경우에도 그들의 안내

및 설명의 내용에 대하여 엄격한 감시를 당한다. 예를 들어 한 조선족 가이드에 따르면 특히 고구려 유적들을 설명할 때 그들의 설명 내용은 어디엔가 설치 된 카메라나 혹은 지켜보는 사람들에 의해 매우 세밀하게 모니터링 되며 만일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른 “올 바른 내용”이 아니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주의를 받거나 관광 안내원의 자격이 박탈된다고 한다(집안시에서 만난 조선족 관광가이드 B씨의 면담자료).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은 그러한 취급에 직면하여 불쾌감을 느끼거나, 분개하고 통탄하거나, 기가 막혀 하거나, ‘알밋다’고 생각하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그런 느낌들, 나아가 그런 대우가 있을 것이라는 사전의 경고 등은 그들의 관광 욕구를 감소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러한 현실 자체가 민족역사 관광의 중요한 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것들이 바로 국제정치적 역학 속에서의 한민족의 위치,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조선족의 처지 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고 민족과 역사를 생각하게 해 주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논문투고일(2009년 10월 13일), 논문심사일(2009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2009년 12월 6일)

참고문헌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4 『다시 보는 고구려사』. 고구려연구재단.

2005 『고구려 문명기행』. 고구려연구재단.

국립민속박물관 편

1996 『중국 길림성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학술총서 20.

김광억

2006 “총론: 종족(Ethnicity)의 현대적 발명과 실천,” 김광억 외 지음. 『종족과 민족: 그 단일과 보편의 신화를 넘어서』. 대우학술총서 577. 서울: 아카넷. pp.15~84.

김병호 · 류춘옥

2008 “조선족 사회문제에 대한 사고” 태평무 편 『21세기 중국에서의 한국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 북경: 민족출판사. pp.203-217.

마나베 유우코(眞鍋祐子)

2007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옛터의 창출과 투여리즘”, 한경구 · 이토아비토 외, 『한·일사회의 중심과 주변』 서울: 아연출판부. pp.13-47.

문옥표 외

2006a 『우리 안의 외국문화: 관광과 음식을 통해 본 문화소비』, 서울: 소화.

2006b 『해외 한인의 민족관계』, 대우학술 총서 586. 서울: 아카넷.

박용희

2003. “한국인의 중국문화인식: 여행기 분석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연구』 5(1): 151~167.

박준규

2007 “민족과 국민사이: 금강산접경지역관광에서 민족경계 넘나들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 박사학위 논문.

송기헌

1998 “한국·중국 간의 관광교류와 문화발전에 관한 사적 고찰”, 『관광정책연구』 4(1): 225-242.

송기호

1993 『발해를 찾아서』 서울: 손출판사.

- 양영균
2006 “베이징 거주 조선족의 정체성과 민족관계,” 문옥표 외 지음 『해외한인의 민족관계』, 대우학술총서 586. 서울: 아카넷. pp.79-130.
- 양한순
2007 “부자와 순례자들: 중국 제일부촌에서의 탈사회주의 모더니티 관광,” 『한국문화인류학』 40(2): 3-47.
- 윤병석
2008 “북간도 한인(조선인) 사회와 명동학교,” 명동학교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북간도 한인의 삶과 애환, 그리고 문화』 동북아 역사재단.
- 윤휘탁
2003 “현대 중국의 변강·민족인식과 『동북공정』,” 『역사비평』 2003년 겨울호(2003. 11): 184-205.
- 이덕일
2008 “광개토대왕비를 찾아서,” 『아침울림』 문화관광부.
- 이병태
1991 『북경·연변, 그리고 백두산: 치과의사 이병태의 중국기행』, 서울: 사형각.
- 정기은
2003 “중국 관광산업의 환경변화 및 발전추세,” 『문화관광연구』 5(1): 129-149.
- 정병일
1989 『한국인의 만주』 서울: 호암출판사.
- 주간동아
No. 618/ 2008. 1. 8. “백두산 사라지고 장백산만 남았다?”
- 차운정
2008 “오 백두산 … 천지가 울고 있다 - 쓰레기 천지 … 세계적 영산으로 보호돼야” 동아일보 매거진 특집, 백두산.

최남선

1973(1927) “白頭山謹參記”, 六堂崔南善全集 6: 11-152. 서울: 현암사.

최한성

1998 “중국연변지역의 관광자원과 한국단체관광에 대한 고찰,” 『지리·환경교육』 6(2): 111-126.

충북일보

2008 “중국의 알미운 문화재 정책”, 2008. 11. 18.

高媛(Gao Yuan)

2001 “記憶産業としてのツーリズム：戦後における日本人の満洲観光”, 『現代思想』 29(4).

2006 “國恥と観光”, 同時代史學會 編. 『日中韓 ナショナリズムの同時代史』. 東京: 日本經濟評論社. pp. 43-60.

2008 “戦地から観光地へ”, 愛知大学中国学会 編. 『中国 21』 Vol. 29. 特集: 旅遊中国一産業としての観光、文化としての観光. 東京: 風媒社. 203-218.

眞鍋祐子(Manabe Yūko)

2000 “現代韓國のナショナリズムとツーリズム”, 『旅の文化研究所研究報告』 旅の文化研究所. pp.79-90.

2001 “韓國人のエスニシティ形成と白頭山‘巡禮’”, 『現代韓國朝鮮研究』 1: 55-66.

Ahn, Yonson

2006 Korea China Textbook War: What's It All About? History News Network <http://hmn.us/articles/21617.html>

D'Amore, L. J.

1988 “Tourism - A vital force for peace,” *Annals of Tourism Research* 15: 269-283.

Grabum, Nelson. H. H.

1989 “Tourism: The Sacred Journey,” in V. L. Smith, ed., *Hosts and Guests: The Anthropology of Tourism* (2nd ed.),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p.21-36.

Higgins-Desbiolles, Freya

- 2003 "Reconciliation tourism: Tourism healing divided societies!"
Tourism Recreation Research 31(1): 44-60.

Kim, Jae Min

- 2000 "Report: A study of tourist demand and accommodation in the
Mt. Paekdusan/Changbaishan area," *Tourism Economics* 6(1).

Li, Yiping

- 2002 "The Impact of Tourism in China on Local Communities,"
Asian Studies Review 26(4): 471-486.

MacCannell, Dean

- 1976 *The Tourist: A New Theory of the Leisure Class*. New York:
Schocken Books.

Moon, Okpyo

- 2009 "Japanese Tourists in Korea: Colonial and Postcolonial
Encounters," in Sylvie Gichard-Anguis and Okpyo Moon, eds.,
Japanese Tourism and Travel Culture. London: Routledge. pp.
147-171.

Oakes, Tim

- 1995 "Tourism in Guizhou: The legacy of internal colonialism," in
Lew, A and L. Yu, eds., *Tourism in China: Geographic,
political, and economic perspectives*, Boulder, Co.: Westview
Press. pp.203-222.

Park, C. J.

- 2005 "Politics of Geumgangsán Tourism: Sovereignty in Contestation,"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8(3).

Smith, Valene L.

- 1989 "Introduction" in Valene Smith, ed., *Hosts and Guests: The
Anthropology of Tourism* (2nd editio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Smith, Valene L.

1992 "Introduction: The Quest in Guest," in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 1-17.

Sofield, Trevor H.B. and Fung Mei Sarah Li

1998 "Tourism Development and Cultural Policies in China," *Annals of Tourism Research* 25(2): 362-392.

Tan, Chee-Beng, Sidney C.H. Cheung, and Yang Hui, eds

2001 *Tourism, Anthropology and China*. White Lotus.

<인터넷 자료>

“고구려 첫 도읍지 오녀산성 찾아가는 길”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daffodilove&folder=21&list_id=9926664

“민족의 뿌리를 찾아가는 길 (1)”

<http://blog.naver.com/pandermi?Redirect=Log&logNo=110035561938>

“무우의 북경 Life-선구자와 일송정”

<http://moowoo.tistory.com/262>

〈Key concepts〉: national tourism, making history, cultural sovereignty,
imaginative consumption, northeast China

Sites of Memory and Imagination: Korean National History Tourism to China

Moon, Okpyo*

The number of Koreans visiting China has seen a significant rise since the re-opening of the diplomatic ties in the early 1990s, and tourism occupies an increasingly important position in this new movement. The earliest wave of Korean tourism to China centers around historic and national tourism in search of the sacred Mount Paekdu of the Korean nation, the remains of Kokuryô and Palhae, the ancient kingdoms of Korea and also the visits to the sites of anti-Japanese struggles during the colonial period.

While the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of China, Liaoning, Jilin and Heilungjiang where still a large number of Korean Chinese are concentrated render a particular historical significance to Koreans, travel to these places had been forbidden to Koreans following the political developments of the post-war era including the division of Korea and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ist regime in China. The opportunities to travel to these historic land are thus most enthusiastically embraced by Koreans once they are opened to the

* Professor of Anthropology, Academy of Korean Studies

public into the 1990s. The Korean enthusiasm for their long-forgotten historic sites that now fall into the Chinese sovereignty, however, soon attracted sensitive attention of Chinese authorities and led to a series of new control and surveillance measures from the latter including the formulation of what is known as the Northeast Project.

This paper attempts to analyse firstly, 1) the process of reconstructing historic sites in Northeast China and transforming them into tourist destinations; secondly, 2) the contesting interests and understanding of the Koreans, the Chinese and the Korean-Chinese surrounding the process; and finally, 3) the meaning of history making and its tourist consumption in the region.